



조기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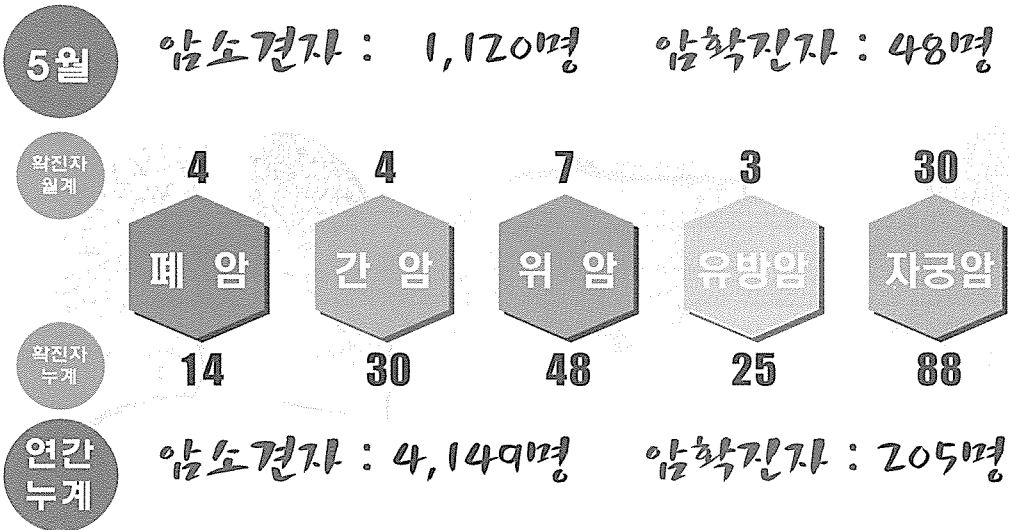
오늘도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민들을 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검진을 통한 암의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암 조기 발견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정○○(남, 57세)씨는 서울지부에서 간암 의심소견을 판정을 받고,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검사결과 간암 판정 후 현재 신촌세브란스병에 입원 후 수술 예정 중에 있다.

또한, 부산에 거주하는 박○○(남, 57세)씨는 부산지부에 간암 유소견 판정을 받고 양산 삼성병원에서 검사결과 간암 판정 후 현재 통원치료 중에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2003년 주요암 발견 현황



간암

◎ 간암의 원인

모든 악성 종양과 마찬가지로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적 요인에는 바이러스성 간염, 혈색소성 및 알코올성 간질환 등과 같은 만성 간질환, 곰팡이에서 유래한 아플라톡신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영양 상태 및 호르몬 등이 가능한 원인으로 제시된다.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규명된 이래 바이러스성 간염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유전적 요인으로는 근래에 괄목할만 하게 발전되고 있는 분자 생물학적 연구에 힘입어 암 유전자 및 억제 암 유전자 등의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그 기전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 간암의 증상

간암에서만 특별히 나타나는 증상은 없으나 일반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간경변의 증상과 같다. 대개 초기증상으로는 몸이 노곤하고 소화가 잘되지 않으며, 헛배가 부르고 식욕이 없어지며 우 상복부에 불편감을 느끼는 등 막연한 증상이 많다.

가끔 우측 늑골의 아래로 단단한 돌덩이 같은 것이 만져지거나 통증과 때로는 간헐적으로 바늘에 찔리는 듯한 아픔이 간 부위에서 느껴지며 주로 밤중에 심해진다.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 전신쇠약, 상복부와 견갑부 동통 및 체중감소이다. 그러나 간암의 증상은 암이 진행되기 전까지 증상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데 증상의 기간은 아주 짧아서 75%이상에서 병력기간은 6주 미만이다. 약 80%의 예에서 체중감소와 허약이 나타나며, 복통은 반수에서 나타난다.

통증은 둔하고 지속적이지만 과사된 결절의 파열이나 혈관의 침식으로 복강 내 출혈이 있을 때는 급작스런 통증을 유발하는데 약 14%의 예에서는 첫 증상으로 발현된다.

간은 대개의 경우 종대되어 있으나 동통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황달, 복수, 비장비대를 포함한 많은 증후가 나타나나 종양보다는 내재되어 있는 만성 간질환에 의한 경우가 많다.

◎ 간암의 초기 진단

간암은 증상을 느낄 정도면 치명적이나 조기발견만 되면 완치가 가능하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최근 혈액검사, 초음파촬영술이 발달해서 암조직의 지름이 0.5cm만 되어도 찾아내 조치할 수 있다.

◎ 간암의 치료법

간암의 치료법을 보면 간절제술, 간이식, 간동맥화학색전술, 경피적무수알코올주입요법 등이 있다. 이 중 간 동맥화학색전술이나 경피적무수알코올주입요법은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되는 보조적 치료법이며, 가장 유일한 근본적 치료는 수술적인 절제술이라고 1986년 미국 보건성 암 연구소에서 발표하였다.

간암의 수술적인 절제술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암종이 단발성이거나 국소적이어야 하고, 임파절이나 혈관 혹은 담관의 침윤이 없어야 하고, 원격 전이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비록 종양이 해부학적으로 절제범위 내에 있더라도 간경변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 무리한 절제는 수술 후 간부전을 야기시킬 수 있다.

화학요법으로는 100명 가운데 한 명이 완치된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간암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정도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암부위를 수술한 뒤 화학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간암의 예방법

간암의 예방법은 간암 발생의 여러 요인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첫째, B형 간염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며, 둘째, 무분별한 성관계의 금지, 셋째, 수혈이나 마약남용을 방지하여 C형 간염을 예방하고,

넷째, 가족 중 간염환자가 있을 시 가족사이의 감염전파를 방지하고, 다섯째, 술자리에서 잔을 돌린 다거나 공동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음식과 음주 문화의 개선,

마지막으로 변질된 음식으로부터 아플라톡신 등을 섭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B형 간염 항원의 보균자는 간암의 발생빈도가 매우 높은 간암의 고위험군에 있기 때문에 매년 2-4회 정도 초음파검사와 혈중 알파피토 단백질 등을 측정하여 간암의 발생 여부에 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식생활 예방법으로는 항염증에 적용하는 노루귀를 섭취하면 좋고 식사는 울무를 주식으로 한 현미, 검정콩 식사가 좋다. 살구씨에 함유된 아미구다린을 비타민 B17이라 하는데 이것이 항암 작용이 있으며 엽기름이나 캄프리에 들어 있는 알란토인 스쿠알렌 성분도 항암 효과가 있다. 